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 연구: 경남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2016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정 다 운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 연구: 경남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한 지원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정 다 운

정다운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26일



주 심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위 원 문학박사 윤 희 수 (인)

위 원 언어학박사 한 지 원 (인)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한국 중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 분석: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 다 운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요 약

오늘날 영어는 전 세계 최소 75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 연합(United Nation, UN)을 포함한 세계 주요 기관, 인터넷 상에서 실질적인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영어는 영어 모국어권 국가들의 지위와 힘에 의해 세계 공용어로서 자리 잡게 되었으나, 이제 비영어권 영어 화자들의 증가로 인해 각 지역별 고유한 특징을 보유한 다수의 변이형 영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영어는 이제 모국어권 국가와 화자들의 소유가 아니라 전 세계 영어 화자들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개방적인 인식과 EIL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영어 교육 과정은 영미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시 중심 분위기로 인해 학생들에게 세계 영어를 접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내 외국인 수, 다문화 가정 및 그 출신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영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언어태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의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학교 내 영어 학습이 어떠한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주된 연구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경남 김해시 소재 A중학교의 학생들을 학년별로 각 2학년씩 총 6학급의 18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4(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나머지 183부(98%)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첫째, 많은 학생들이 영어가 국제 공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와 사설 학원에서 내신과 입시에 대비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영미권 영어 외 다양한 세계 영어에 대해 배울 기회도 거의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세계 영어에의 선호도에 있어서 영미권 영어에 대한 선호도가 인도, 필리핀 등 공용어권 영어에 대해 현저히 높았다. 변이형 세계 영어에 대해 선입견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아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식 영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호하고 있었으나, 한국식 영어 발음보다 영미권 화자의 발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학생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영미권 영어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기며, 미래에 영어 학습을 위해 영미권이 아닌 공용어권 국가로의 해외 연수도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세계 영어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EIL 소유권에 대해서 학생들은 영어가 영미권 소유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모든 화자들의 것이며, 한국식 영어도 세계 영어 중 하나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우리 학습자들의 언어태도가 다양한 세계 영어에 대해 긍정적인 수용할 인식 개선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교육의 영어 교과 교육 과정에서 세계 영어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외국어 습득을 통해 모국어와 외국어에 대한 언어태도를 형성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기청 소년기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접촉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 학습자들이 세계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서의 영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세계화의 흐름에 맞도록 기존의 미국식 영어 중심 교육 및 평가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와 함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차

목차	i
그림 목차	iv
표 목차	v
그래프 목차	v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문제 및 목적	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5
1. 국제어로서의 영어(EIL)	5
1.1 세계 영어(World Englishes)의 개념과 역할	8
1.2 세계 영어 모형	10
1.2.1 Kachru의 원형 분류 모형	11
1.2.2 Modiano의 국제어로서의 영어 모형	13
1.2.3 김명숙의 The English Pyramid	14
2. 국제어로서의 영어와 영어 교육	16
2.1 국제어로서의 영어 교육의 필요성	17
2.2 중학생 학습자의 발달 특성과 영어 교육	19
2.3 경남의 지역적 특성과 영어 교육	23
3. 선행 연구	24

3.1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한국 학습자들의 태도	25
3.2 지역별 학습자들의 영어 및 영어 교육	30
3.3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이점	31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33
1. 연구 대상	33
1.1 연구 대상 선정 기준	33
1.2 연구 대상의 특성	34
2. 연구 기준 및 방법	35
2.1 설문지 구성	36
3. 연구 단계 및 자료 수집	38
4. 분석 방법 및 과정	38
IV. 연구 결과 및 논의	39
1. 응답자의 영어 학습 환경 분석	39
1.1 영어 학습 상황	39
1.2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학교 학습 상황	44
1.3 지역적 특성	48
2. 응답자의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	53
2.1 원어민 및 비원어민 사용자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53
2.2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	60
3. 영미권, 공용어권, 한국식 영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63
3.1 영미권 영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63

3.2 공용어권 영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68
3.3 한국식 영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70
4. EIL 소유권에 대한 인식	72
4.1 영어의 다양성에 대한 태도에 나타난 영어 소유권 인식	72
V. 결론 및 제언	75
1. 결론	75
2. 제언	77
3. 본 연구의 제한점	79
참고문헌	80
<부록> 설문지	84

그림 목 차

<그림 1> Kachru의 원형 분류 모델	11
<그림 2> Modiano의 국제어로서의 영어 분류 모델	13
<그림 3> 김명숙의 The English Pyramid	14
<그림 4> 문항 8에 대한 답변 A	49
<그림 5> 문항 8에 대한 답변 B	50
<그림 6> 문항 8에 대한 답변 C	50
<그림 7> 문항 11에 대한 답변 A	55
<그림 8> 문항 11에 대한 답변 B	56
<그림 9> 문항 11에 대한 답변 C	57
<그림 10> 문항 11에 대한 답변 D	57
<그림 11> 문항 11에 대한 답변 E	57
<그림 12> 문항 11에 대한 답변 F	59
<그림 13> 문항 11에 대한 답변 G	59

표 목 차

<표 1> Piaget의 인지발달단계이론 및 특징	20
<표 2> Eirikson의 심리사회적 성격 발달단계 및 특징	22
<표 3> 설문조사 대상자 구성 및 특성	34
<표 4> 설문지의 문항 구성	37
<표 5> 문항 11 설문 결과 기술통계	54
<표 6> 문항 12 설문 결과	60
<표 7> 문항 13 설문 결과	61
<표 8> 문항 14 설문 결과	61
<표 9> 문항 15 설문 결과	62
<표 10> 문항 16 설문 결과	64
<표 11> 문항 17 설문 결과	65
<표 12> 문항 18 설문 결과	66
<표 13> 문항 19 설문 결과	67
<표 14> 문항 20 설문 결과	68
<표 15> 문항 21 설문 결과	69
<표 16> 문항 22 설문 결과	70
<표 17> 문항 23 설문 결과	71
<표 18> 문항 24 설문 결과	73
<표 19> 문항 25 설문 결과	74

그 래 프 목 차

<그래프 1> 영어 학습 이유	40
<그래프 2>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영어 학습 방법	41
<그래프 3> 평소 영어 사용 빈도	42
<그래프 4> 어학연수 및 유학 여부	43
<그래프 5> 학교에서 접하는 외국인	45
<그래프 6> 학교에서 학습하는 영어의 종류	46
<그래프 7> 학교 내 세계 영어 학습 경험	46
<그래프 8> 세계 영어 화자와의 소통 경험	49
<그래프 9> 주로 접하는 외국인	51
<그래프 10> 지역사회 내 외국인 접촉 빈도	5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지구상의 국가들은 다양한 매체의 발달, 통신 및 교통의 발달,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점차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각 국가별로 상이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류가 가능한 데에는 영어의 역할이 크다. 영어는 다양한 출신 국가, 문화적 배경, 언어적 특성을 가진 세계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주요 매개체가 되었으며,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필수적인 기본 소양이 되었다. 현재 영어는 최소한 75개의 나라에서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공식적 언어가 아니더라도 여러 국가에서 필수적인 목표 외국어로 대우받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주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어는 통계적으로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구사한다고 본다(Graddol, 1997). 화자의 출신 국가 별로 살펴보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 화자는 약 3억 7천 5백만 명 정도로 보이며(Curtis, 2006)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공용어권 국가 출신의 화자들은 그보다 더 많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과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사용하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¹⁾학습권 국가 출신 화자들은 약 7억 5천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며 2020년을 전후하여서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1) 이하 EFL로 약칭하겠음.

해당하는 약 20억 명이 영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적절히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Graddol, 2006). 따라서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의사소통의 수단을 이유로 사용하는 비원어민 화자들(Non-native speakers: NNS)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비원어민 화자들 간의 의사소통 기회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이화정, 2014). 또한, 현재에도 중국식 영어인 Chinglish, 한국식 영어인 Konglish와 같은 용어가 있듯이 각 국가별 독특한 변이형 영어(English variation)가 발달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Crystal(1997)에 의하면 영어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5개 국가에서 모국어로 사용되는 것보다 그 외 약 75개 국가에서 훨씬 많은 화자들에 의해 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언어, 문화적 특성에 의해 영어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 영미권 중심의 표준화된 영어에서 그 범위가 넓어져 다양한 형태의 영어들(Englises)가 등장하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전미경, 2014). 그러므로 영어는 앞으로 문법 규칙이나 발음보다는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중시될 것이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도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된다.

그러나 우리 영어 교육과정은 1954년도에 제1차 영어 교육 과정이 발표되었을 당시, 영어 학습의 기준과 목표를 미국 영어로 택하였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 및 미국식 영어에 대한 암묵적 선망으로 인해 미국 영어를 표준으로 기정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영어 교육과정의 목표를 의사소통의 달성을 첫째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로 인해 문법과 독해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학생들 스스로 영어 학습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하며, 미국식 영어가 올바른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다. 송경숙(2011)은 학습자가 모국어 및 다른 언어에 대해 가지

는 감정을 언어태도(language attitude)로 명명하면서 이 태도는 언어의 학습 동기 및 학습 성취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영미권 영어를 표준화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한국식 영어 발음을 부끄러워하고, 영미권 화자와 똑같이 말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영미권 영어는 선호하고 공용어권 영어를 선호하지 않는 등, 편견을 가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영어에 대한 태도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세계관 및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세계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김소연, 2008).

이화정(2014)은 이를 위해 ‘다중언어사용자 모델(Multi-competence User Model)’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역할과 다양한 변이형 및 다문화성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다중언어사용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원어민 화자와 차이를 보이는 자신의 발음이나 문법사용을 ‘부족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인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세계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로서의 다중언어사용자 모델 교육을 실시하여야 편견 없는 언어태도를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세계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를 이해하여 원하는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하는 세계인이 되도록, 초기 영어 학습 시기부터 세계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교육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2. 연구 문제 및 목적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세계 영어에 대한 인식 및 도구적 영어의 쓰임에 대한 태도를 고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한국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미비하게 다루어졌던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지역적 특성의 영향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남 지역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목적은 무엇이며 일반적인 영어 학습 환경은 어떠한가?

둘째, 경남 지역 한국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경남 지역 한국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세계 영어의 각 범주에 대한 선호도와 태도는 어떠한가?

넷째, 경남 지역 한국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국제어로서의 영어(EIL)

오늘날 영어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국제 공용어(Lingua Franca)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선행 연구들이 동의해 왔다. Smith(1976)는 국제 공용어라는 의미로 International language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용어는 ‘서로 다른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국어를 제외한 언어’라는 의미이다. Smith(1976)는 이러한 세계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된 문화의 흡수를 필수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어민들의 행동의 문화적 기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International Language는 한 나라의 소유로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의미한다.

셋째, 영어는 International Language로서 그 기능적 역할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영어 교수의 목적은 영어를 매개로 하여 학습자들의 생각과 문화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정현정, 재인용, 2014).

Smith가 위와 같이 서술한 International Language는 UNESCO(2003)가 정의내린 Lingua Franca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UNESCO는 국제어라는

용어를 ‘A language which is used habitually by people whose mother tongues are different in order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m’으로 정의 내렸다. 즉, Smith와 UNESCO의 세계 공용어에 대한 정의는 모두 화자의 출신 국가나 민족, 문화와 상관없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 세계 공용어는 모국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통용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의미하며 영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국가의 언어보다도 영어가 오늘날 국제화 사회에서 제1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Smith는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라는 의미로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영어는 국제어로서 모국어 사용 화자들의 소유가 아니며 영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그 정체성이 특정 국가나 문화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특정 국가를 따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영어는 세계 전역에서 쓰이면서 확산되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다.

McNamara(1997)는 World English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다 (1997; 김소연, 재인용, 2008).

1. 이중 언어와 다중 언어 화자들이 사용한다.
2. 새로운 영어(New Varieties of English: NVE)가 활성화되는 상황은 음운, 문법, 그리고 다른 언어의 관용어에 영향을 받으며 이중 언어와 다중 언어 공동체에서 하나의 제도가 된다.
3. 정확성과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되는데, 이 속에서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변수가 증가한다.
4. 여러 다양성을 가진 일반적 발화, 획일화된 인쇄매체 사용의 감소, 구어와 문어와의 밀접한 관계, 쓰기의 다양한 변화, 방송 형식의 다양한 변

화, 인터넷 및 인쇄물에서 보이는 다양성의 변화가 포함된다.

5. 형식이 다양화되고, 대중적인 담화에서 구어체적인 언어 사용이 증가하여 비형식화 된다.

이러한 세계적인 영어의 확산에 대해 Pennycook(2001; 이채희, 재인용, 2014)은 영어가 확산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 언급하며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자연성(natural)이다. 영어는 식민지 지배로 인해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세계화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파급이 이루어져 왔다.

둘째는 중립성(neutral)이다. 영어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들과는 다르게 문화적, 정치적 영향에 제약을 받지 않는 중립성을 갖는다.

셋째는 이권성(beneficial)이다.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영어 화자들의 이권이 보장되고 이들의 세계로의 진입을 위한 기회를 보장한다.

위와 같이 영어는 국제회의, 우편물, 강의, 비즈니스 등 다양한 곳에서 영어가 세계인들 간의 공통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어 사용의 증가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곳이 인터넷이다. 전세계적으로 주요한 문서나 지적재산물들이 대부분 영어로 기술되며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정보의 교류와 공유가 더욱 활발해졌다. 전세계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부들 중 80%는 영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인터넷 상의 정보들 또한 이와 비슷한 수치로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복거일, 2003; 이채희, 재인용, 2014).

김명숙(2005)은 인터넷 상의 영어를 'English as Network English'로 명명하면서 아직 그 특성과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새로운 영어의 그룹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즉, 영어가 국제 공용어로서 사

용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Crystal(1997)은 영어가 국제 공용어와 같은 지위를 지니게 된 것을 그 언어를 전파시킨 국가와 민족의 정치적, 군사적 힘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영어공용화의 주된 원인은 세계에 대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영어는 본래 영국에서 사용되던 언어였으나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로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이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의 성장과 함께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영어를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각 지역별로 영어의 토착화(nativ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가 생겨나 독특한 변이형 영어가 발달하게 된다. Crystal(1997)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의 영향력에 대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힘과 국제적 위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러한 영어의 변이형에 대한 태도에도 사용 국가의 지위가 영향을 미친다. 영국 영어(British English), 호주 영어(Australian English), 뉴질랜드 영어(New Zealand English) 등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변이형 영어로 인정하는 반면, 일부 영어 변이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도 한다. 중국의 영어인 Chinglish, 필리핀의 Englog,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어인 Konglish가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1.1. 세계 영어(World Englishes)의 개념과 역할

앞서 국제어로서의 영어²⁾(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EIL)에 대한 정의와 그 특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는 국제 공용어로서의 지

2) 이하 EIL로 약칭하겠음.

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영어를 세계 영어(World Englishes)라고 할 수 있다. Kachru는 세계 영어를 세 가지의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최초로 'Englishes'라는 복수형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영어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Kachru, 1992; Brown, 1995).

Kachru가 정의하는 세계 영어의 첫 번째 특징은 세계 영어는 전 세계의 모든 다양한 영어의 형태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때의 영어는 영미권 영어 외에도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화자가 사용하는 영어도 포함된다. 또한 공식적 자리에서 사용되거나 지식인이 사용하는 영어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길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모두 포괄한다(정현정, 재인용, 2012). 즉, 잘 갖추어진 문법 체계를 가지고 규칙에 맞게 사용된 영어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 어떤 화자에 의해 발화되든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어를 영어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특성은 세계 영어가 그 영어가 사용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그 지역 모국어가 영어에 영향을 미치면서 생기게 되는 새로운 특성 등이 배척되거나 고쳐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Kachru는 각 지역에서 국가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언어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해당 국가의 화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영어가 실질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과거 영어가 제국주의 시대를 지니며 형성해 온 언어 제국주의적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세계 영어의 범위는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세계 영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화자들의 소유이다. 이것은 영어가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영어의 소유권을

크게 확장하는 관점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Kachru는 세계 영어를 매우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다양한 변이형과 여러 국가 출신의 화자들을 전체 수용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영어의 역할과 목표는 전 세계인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며, 더 이상 영미권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 공동체에서 다양한 모습과 형식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Kachru(1995) 외에도 Crystal(1997)은 세계 영어를 English as a global language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McKay(2002)는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화자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International English로 명명한 바 있다. 즉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세계 영어를 World Englishes, English as a Lingua Franca,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EIL), International English 등 다양한 용어로 명명하고 있으나 그 근간이 원어민 및 비원어민 화자들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영어 변이형을 포함한 영어라는 것은 큰 이견이 없다. 결론적으로 국제어로서의 영어는 전 세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이해(mutual intelligibility)와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이화정, 2014). 이처럼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명명하는 명칭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화자들의 입을 통해 여러 상황과 장소에서 사용되며 지역적 특성과 가변성을 포함하는 영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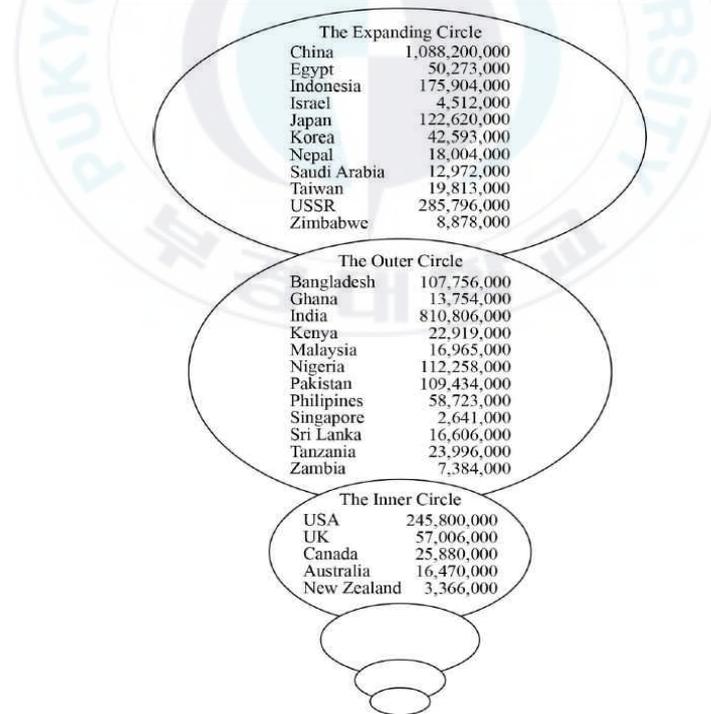
1.2. 세계 영어 모형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세계 영어에 대하여 몇 가지 모형을 고안하여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각 모델에서 나타난 학자들의 새롭고 흥미로운 관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2.1. Kachru의 원형 분류 모델

Kachru의 영어의 원형 분류 모델은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해 논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모델이다. 그는 세 개의 원형으로 영어의 역할 및 위치를 나누었는데,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의 화자를 중심으로 분류를 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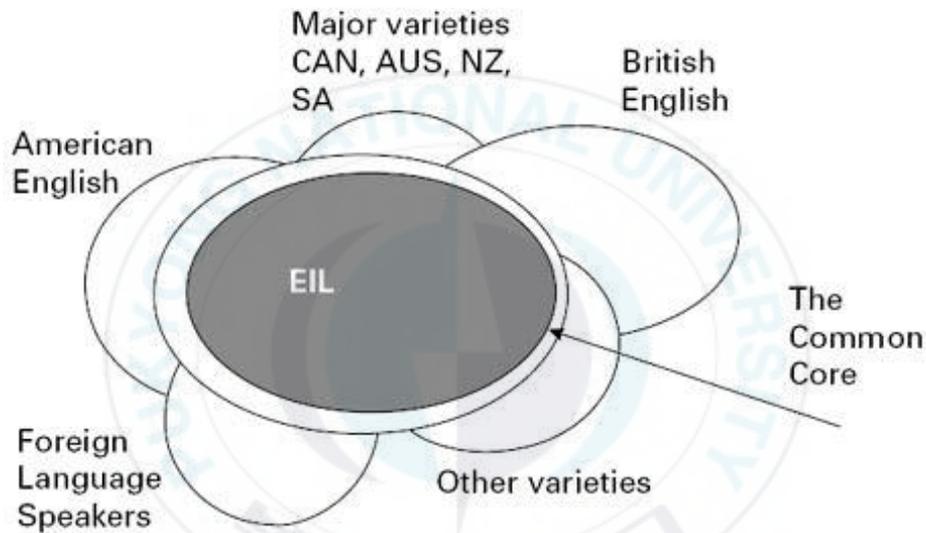
<그림 1> Kachru의 원형 분류 모델 (Kachru, 1985)

Kachru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어 화자는 세 개의 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가 속하는 내부원(the inner circle)이 가장 적은 수의 화자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도, 필리핀, 자메이카 등 영어를 제2언어 및 공용어로서 활용하는 국가 출신의 화자들은 외부원(the outer circle)에 속하며 내부원의 화자보다 그 수가 많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확장원(the expanding circle)은 세계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영역이 가장 넓다.

Kachru의 모델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의 수보다 제2언어, 나아가 세계어로서 사용하는 비원어민 화자들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델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해 확장원에 포함되는 영어 화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점점 비원어민 간의 영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이 늘어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어린 영어 학습자들은 모국어권 영어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1.2.2. Modiano의 국제어로서의 영어 모델

Modiano는 앞서 살펴본 Kachru의 모델과는 달리 세계 영어를 영어 그 자체에 집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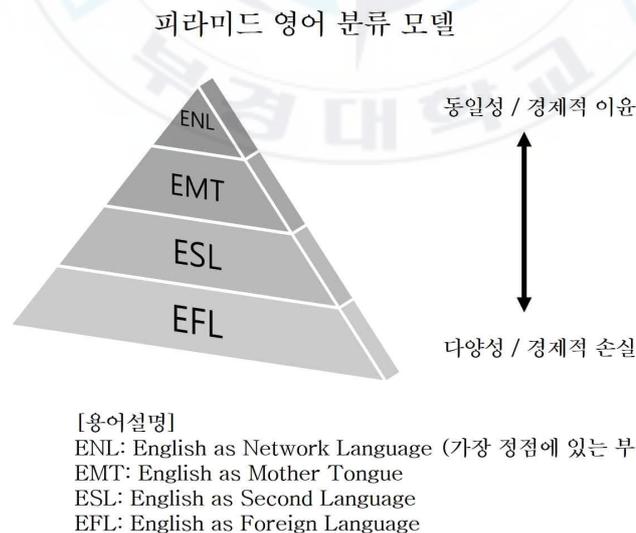
<그림 2> Modiano의 국제어로서의 영어 모델 (Modiano, 1999)

그의 모델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부분은 EIL로서, 이는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의미한다. 이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는 원어민과 비원어민을 모두 포함하며 이는 'the common core'라고 명명한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조금 더 넓게 분포하는 바깥 원은 국제어로서 사용되기는 하나 표준으로 통용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영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외곽에 위치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원형들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 여러 형태의 변이형 영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소위 콩글리

쉬(Konglish) 또한 이 영역에 위치한다. Modiano의 세계 영어 모델은 국제어로서의 영어로 쓰이는 다양한 변이형 영어를 인정하며 이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쓰임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 유의미하다. 그러나 여전히 EIL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특성을 제시하지 못하여 다양성을 인정한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정현정, 재인용, 2014).

1.2.3. 김명숙의 The English Pyramid

김명숙이 제시한 영어 피라미드 모델(The English Pyramid)은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 사용 지역, 그리고 영어 그 자체에 대한 고찰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그림 3> 김명숙의 The English Pyramid (김명숙, 2005)

특히 이전 연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급변하는 국제 사회에서 영어가 온라인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이는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부분이자 가장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ENL(English as Network Language)에 표시되어 있다. 이는 세계 영어의 의사소통이 인터넷 상에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록 그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고 화자의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으나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라미드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두 번째 크기의 영역을 차지하는 모국어로서의 영어가 있으며, 차례로 제2언어로서의 영어, 마지막으로 외국어로서의 영어가 위치하고 있다. 이 계층들은 영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각 계층의 크기는 해당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수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 위에서 아래의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비원어민 화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어의 변이형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각 지역의 독특한 억양과 발음이 반영되며 지역의 기존 모국어와 충돌하여 변형된 문법 체계를 가지기도 한다. 피라미드의 위쪽으로 갈수록 영어는 통일성이 있으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역성이 강화된다(전미경, 2014).

위 모델을 통해 영어의 경제적인 효과도 설명할 수 있는데, 상부에 위치한 영역에 포함된 영어일수록 경제적 이익 창출 효과가 크며 하부로 내려갈수록 이익보다 손실이 발생한다. 즉, 많은 영어 화자들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을 위해 피라미드 위쪽에 있는 영어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김명숙의 영어 피라미드 모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영어의 계층화가 뚜렷이 보인다는 점이다(전미경, 2014). ESL(English as Second Language) 및 EFL(English as Foreign Language)의 하부 계층에 속하는 화자들은 상부에 속하는 EML(English as Mother Language) 및

ENL(English as Network Language)의 영어를 기준으로 삼고 더 높게 평가한다. 예를 들어, 위 모델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ESL에 속하므로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화자들을 더 높게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화자들은 네트워크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자신의 모델로 삼게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권 영어에 대한 우월감 및 비모국어권 영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영어의 계층화로 인해 변이형 영어가 사라져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다양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위 모델이 보여주는 영어의 계층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세계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영어 소유권에 대한 이해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2. 국제어로서의 영어와 영어 교육

Kachru(1997)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 영어의 등장으로 인해 영어 교육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새로운 영어가 나타난 것과 함께 언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활력, 혁신, 혼합과 정체성을 함께 아우르는 ‘자유로운 영어(liberalized English)’를 주장한다. 즉, 영어는 단일 언어나 단일 국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영어가 효과적인 국제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로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 영어 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도에 개정된 현재 우리나라 영어 교육 과정

의 목표³⁾는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국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력 함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어 수업 자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 중 읽기와 문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화정(2014)은 외국어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같아지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태도는 그 언어의 성취 기준을 원어민에 두게 되면서 결국 학습자가 원어민과 차이를 보이게 될 경우 그것을 ‘부족함’이라고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영어를 단순히 원어민 화자의 아류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소유 의식이나 정체성을 가지기 힘들 것이다. 특히, 언어 태도를 형성하는 초기에 속해 있는 초기 청소년기의 중학생 학습자들의 경우 영어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을 위험성이 있다. 본 절에서는 국제어로서의 영어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그러한 교육이 중학교 학습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특히 경남 지역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1. 국제어로서의 영어 교육의 필요성

이화정(2014)은 청소년기의 학습자들에게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바른 언어태도의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언어태도란 화자가 의사소통을 상황 속에서 상대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가지게 되는 느낌, 또는 내면적 평가 등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는 이 부분에

3) 출처: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

서 이러한 평가가 단순히 발화에 대한 태도로 끝나지 않으며 나아가 그 사람이나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가까지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형태의 여러 변이형의 세계 영어를 대할 때 어떠한 언어태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외국인 영어 화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학습자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 또는 비원어민 화자와 그가 속한 환경에 대해 가지게 되는 특정 이미지나 인상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렇게 세계 영어에 대한 바른 언어태도 함양을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영어 교육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해야 하는 EFL 환경에 속해 있다. 학교 밖에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영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즉, 공교육의 영어 교육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에게 대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영어 교육 과정은 대부분 미국식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세계 영어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서윤희(2015), 정지희(2013), 김눈송이(2012) 등의 선행연구에서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다문화적 내용에 대해 연구한 결과, 대다수의 영어 교과서의 내용 구성, 발음 등이 모국어권 영어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변이형 발음이나 세계 영어에 대한 내용 구성은 찾기 어려웠다. 영미권 외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화나 음식, 풍습 등에 대한 내용만 다루어졌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으로 출신 국가가 설정된 교과서 속 인물들의 발음도 미국식이었다는 점도 우리 영어 교과서가 세계 영어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역할에 관련하여 황혜원(2015)은 현직 및

예비교사, 류수련(2010)은 예비교사 및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세계 영어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영미권 영어를 더 선호하고, 또한 영미권 영어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 영미권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세계 영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세계 영어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입시 중심의 분위기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2.2. 중학생 학습자의 발달 특성과 영어 교육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시기에는 만 13세 정도에서 시작되는 초기 청소년기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아 존중감 및 자아 정체감을 포함한 자아개념(self-concept)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에 있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어떻게 이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Piaget에 의하면 중학생 시기에는 인지발달단계이론의 형식적 조작기⁴⁾(formal operation stage)에 들어서게 되며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을 둘러싼 주변 상황과 가족, 주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논리, 이념, 가치관 등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며 이상과 현실에 대한 자기 나름

4) 출처: 허승희, 이영만, 김정섭 (2015).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p. 42

의 판단을 해 나가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언어를 바라보는 언어태도를 형성해 나가게 되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영어에 대해 가지는 생각 및 영미권 및 공용어권 영어를 보는 태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표 1> Piaget의 인지발달단계이론 (Eggen & Kauchak, 2011)

발달단계	특징	예시
감각운동기 (sensorimotor) 0-2세	목표지향 행동	뚜껑을 열면 인형이 나오는 상자에서 인형을 얻기 위해 뚜껑을 연다.
	대상 영속성	어머니의 등 뒤에 있는 물체를 찾아낸다.
전조작기 (preoperation stage) 2-7세	언어능력의 성장 및 언어사용의 과잉일반화	존댓말 오류 “엄마, 할아버지가 식사하시고, 동생도 식사를 하세요.”
	상징적 사고	차창 밖을 가리키며 ‘트럭’이라고 말한다.
	지각에 의한 지배	모든 물은 세면대의 수도꼭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조작기 (concrete operation stage) 7-11세	구체적 물체를 논리적으로 조작함	저울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물체는 비록 부피가 다르더라도 질량이 같다고 생각한다.
	분류 및 서열화	부피가 큰 순서대로 빵을 배열한다.
형식적 조작기 (formal operational stage) 11세-성인	추상적이고 가상적 사고	만약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이겼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본다.
	조합적 사고	세 종류의 햄, 치즈, 빵을 가지고 몇 가지의 샌드위치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Erikson은 Piaget의 이론을 수정, 보완하여 인간의 사회관계를 중시하고 형식적 조작기 이후의 성인기의 발달단계를 구체화한 이론을 내었다. Erikson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할 때 자기 스스로만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친구 및 동료, 선생님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으며 관계 속에서 함께 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지적 능력이 성숙해지는 동시에 자기 이미지, 자아존중감 등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Brown, 2007; 이화정, 재인용, 2014).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학생들은 이 때 받아들이는 제2언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체감을 가지게 되면서 제2언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거부감을 갖지 않으려면 모험에 대한 시도와 불안을 낮추고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제2언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시하고 있는 영어를 교육함에 있어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지 않도록 초기 청소년기에 영어에 대해 올바른 태도와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표 2> Erikson의 심리사회적 성격발달단계 (Eggen & Kauchak, 2011)

단계	나이	심리사회적 위기	주요 관계	주요 행동
1	출생-18개월	신뢰감 대 불신감	어머니 또는 초기양육자	얻기, 받아주기
2	18개월-3세	자율성 대 무력감	부모	붙들기, 내보내기
3	3-6세	주도성 대 죄의식	가족	따라하기, 가장놀이하기
4	6-12세	근면성 대 열등감	이웃, 학교	만들기, 함께 만들기
5	12-18세	정체감 대 역할 혼미	동료, 지도자	자기 되기, 함께 하나 되기
6	성인 초기	친밀감 대 고립감	친구, 이성, 경쟁자, 협력자	타인 속에서 나를 찾거나 잃어버리기
7	성인 중기	생산성 대 침체감	가족, 직장	보살피기
8	성인 후기	통합감 대 절망감	인류, 우주	과거를 통한 현재 확인 무존재 확인

Piaget의 인지발달단계 이론, Erikson의 사회문화적 성격 발달 이론과 함께 Brown(2000; 이화정, 재인용, 2014)은 초기 청소년기의 사회 문화적 및 심리 발달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학습자는 제2언어를 습득할 때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될 위험이 있는데, 영어 학습자의 경우 영어를 받아들이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인 초기 청소년기에 이를 바람직하게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정관념이 일반화되는 후기 청소년기 및 성인기가 되기 이전에 언어 및 언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경남의 지역적 특성과 영어 교육

행정자치부가 2015년 1월에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305,446 명이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다수(253,791명)는 여성으로 이는 결혼을 위한 이민자가 많아진 것에 기인한다. 이들의 출신국가별 현황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출신국가는 중국이며 다음으로는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으로 대부분 아시아 지역이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영미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 외국인 거주민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서울(74,629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인천 및 경기도권이다. 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경남(16,836명)인데, 이는 경남 지역에 넓게 분포한 공업 단지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높고, 농촌 지역의 결혼 이민 여성의 수가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다문화 초·중·고교생은 총 8만 2000여 명으로, 이는 전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1.3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초등학생의 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다. 이 중 중학생의 비율은 이 중 0.87%로 그 수는 1만 3865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위해 국내 다문화 초중고교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학생 부모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베트남 국적자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출신 순서로 그 수치가 높았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이 타 국적 출신의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서 살아갈 때 의사소통을 위해 영미권 영어보다는 공용어권 영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경남지역 중에서도 김해 지역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 비율, 이들 이주여성들의 자녀 비율도 높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접하는 외국인이 비교적 많다고 생각되며 그 출신국가도 아시아 권역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볼 때, 창원 및 김해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접할 수 있는 빈도가 높고, 이들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시 한국어, 또는 국제 공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영어는 비원어민 간에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영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해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영어를 접하는 환경 및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선행 연구

본 절에서는 한국에서의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한국 학습자들의 태도 및 지역별 영어 학습의 특징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한국 학습자들의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각 지역별 학습자들의 영어 및 영어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들과 다른 본 연구의 차이점에 대해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3.1.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한국 학습자들의 태도

전미경(2014)은 한국 중학생들의 세계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중등 영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 및 베트남에 거주하는 중학생 93명이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영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및 EIL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또한 거주 지역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학습 환경에 따라 EIL에 대한 인식이 다른지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학습 상황 분석 및 학교 상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두 지역 간 학생들의 인식 차이는 근소한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명되었다. 두 지역의 학생들 모두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공용어권 영어에 대해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여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IL 소유권에 대한 인식 분석에서도 두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영어는 영미권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공유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나 학생들의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외에서 경험하는 영어 학습 환경이 영미권 중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영어 교육의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현행 입시 정책을 세계 영어 확산의 추세에 맞추어 재정비하고 양질의 교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현정(2012)은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 영어 및 다양한 영어의 변이형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영어 공교육이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갖고 있는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은 가장 많은 수의 피험자가 설문조사가 참여하였으며 이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거주 지역이 서울, 대구, 중국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다양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세계 영어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인식을 신뢰도 있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된 방법은 설문조사였으며 총 46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 영어 다양성에 대한 태도, EIL 소유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서 특정 국가나 인종에 소유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영미권 영어에 대해 선호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가졌다면 이 연구의 피험자들은 비선호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그만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안 받아들인 영미권 영어 중심 교육의 문제성을 깨우쳤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으로 공용어권 및 한국식 영어에 대해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 고등학생들의 세계 영어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어의 소유권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영어의 소유권이 국가가 아닌 세계의 모든 영어 화자에게 있음을 인식은 하나 그 수준이 미미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영미권 중심 영어 학습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식 영어 사용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화정(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 중학생이 EIL에 대해 인식을 어떠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EIL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해결책은 성공적인 비영어권 영어 화자의 동영상 시청하는 방법으로 중학교 학습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영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나아가 스스로의 자신감도 갖출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 학

생 62명으로 연구 과정은 피험자들을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반씩 나누어 사전 설문조사, 실험반에 대한 동영상 시청,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세계어로서의 영어를 이해하고 있으며 공용어권 영어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영어 교사 선호도를 물었을 때에는 영미권 출신이 아닌 영어 교사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 표면적인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는 실험반 학생들에게 4주 동안 8회에 걸쳐 성공적인 비영어권 화자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반은 사전과 사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통제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반 학생들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원어민과 비슷한 발음을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발음이나 억양과 상관없이 영어는 세계인이 사용하는 국제적 언어라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음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영어를 접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EIL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손흥동(2011)은 성인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 및 영어 다양성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 소재의 대학생 및 직장인 영어 학습자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에서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영어의 소유권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있지 않다고 동의하는 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영어 실력의 평가에 있어서도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도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었다. 즉, 우리나라 성인 학습자들은 세계어로서

의 영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국어권 영어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그 동안 미국 영어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자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영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영미권 영어 중심의 학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류수련(2010)은 한국 성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영어 변이형에 대한 태도, 세계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영어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선행 연구들과 달리 Kachru의 Three Circle's of English 모델 중 확장권역에 속한 국가 출신의 화자의 음성 녹음을 청취하게 한 뒤 피험자들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세계어로서의 영어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영어는 미국에 그 소유권이 있으며 미국식 영어를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간 미국식 영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왔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설문 조사 이후 미국식 발음을 구사하는 원어민 화자 및 외부권역에 속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의 총 8가지의 음성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피험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피험자들은 음성을 청취한 뒤 미국식 영어 발음과 한국식 발음에는 선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변이형 영어 발음에 대해서는 그 선호도가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많은 피험자들이 다양한 발음을 듣고 난 뒤 세계 영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했으며 자신의 한국식 영어 발음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졌다고 대답하였다. 즉 여러 가지 변이형 영어에 대한 접촉과 노출이 학습자들의 세계 영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이 연구의 화자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폭넓은 변이형의 영어를 동영상 및 음성으로 접하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미국식 영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선시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송서은(2008)은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 중에서도 20, 30대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각 권역별 영어에 대한 태도 및 영어 소유권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영어 학습자들이 EIL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영어가 그저 입시나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가 이제까지의 영미권 중심 영어 교육을 받은 성인 학습자들의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피험자들이 여전히 영미권 영어 화자의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한국 영어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한국 성인 학습자들이 영어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반면 영미권 영어를 선호하고 있다면 영어 학습의 기준을 영미권 영어로 삼아 한국식 영어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자는 한국식 영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공교육의 영어 학습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3.2. 지역별 학습자들의 영어 및 영어 교육

그 동안의 EIL에 대한 국내 학습자들의 태도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이루어져,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다기보다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선정된 지역의 학생들이 마치 전체 학습자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현정(2012)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 외에도 대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대구 또한 광역시로 인구가 많고 교육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 연구가 소도시 또는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의 학습자들의 의견까지 반영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백수은(2011)이 거주 지역별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와 문화 간 감수성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나, 이는 서울 지역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전체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선진국 중심 영어교육에서 탈피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강조해왔던 점으로, 우리 교육이 미국식 영어를 표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어린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지혜(2015)는 경남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생들의 생각과 경험을 넓혀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촉과 자극이 필요하며,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다문화 인식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영미권 영어

에 대한 선호도를 높게 가지거나 공용어권 영어에 대해 낮설어하지 않도록 다양한 국가의 영어 변이형과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3.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이점

첫째, 종전의 다수의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험자들의 의견을 얻을 수 있는 연구는 적었기 때문에 대도시 위주의 연구가 한국 학습자들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영어 학습 환경은 지역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남 지역 학습자들을 설문조사 대상자로 하고자 한다.

둘째, 세계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 중 많은 수가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피아제의 심리발달 이론에 의하면 초기청소년기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언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자신이 언어에 대해 가지게 되는 가치관과 태도를 정립하게 되는 출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 이론에 의거하여 사춘기 시기의 학습자들이 제2언어를 받아들일 때 모국어와 외국어에 대해 자신의 자아가 가지는 태도를 형성하고 외국어에 대해 위축감을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이화정, 2014). 특히, 박종원(2004)은 한국의 초기청소년기 학습자들이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의

분위기 속에서 외국어를 잘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위축감과 열등감을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민감한 시기의 학습자들에게 세계 영어에 대한 개방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있는 중학생 학습자들의 세계 영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장에서는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 및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지역 소재 김해시에 위치한 A중학교의 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총 187명이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나이, 성별, 해외 경험 유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1. 연구 대상 선정 기준

본 연구의 설문 조사 대상자는 경남 지역 소재 김해시의 A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187명이다. 187부의 설문지 답안 중 신뢰할만한 183부를 선정하여 연구 자료로 채택하였다. 김해 지역은 지역의 외곽 및 주변 지역에 공장단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공항을 근처에 하고 있어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 또한 A중학교 인근은 주거 시설이 발달한 곳으로 이에 따라 학교 및 학원 등 교육 시설도 발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한국 중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해 지역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기초적 영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영어 실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에 있는 학습자들이다. 이와 더불어, 중학생들은 타인

및 세계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김해시 A중학교의 학생들을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연구하여 앞으로의 한국 중등교육에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설문조사 대상자로 채택, 연구를 실시하였다.

1.2. 연구 대상의 특성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한국인 중학생으로, 만 13세에서 만 15세의 나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년 별 의식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비교하고자 함이 아니므로 응답자의 학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해외 연수 및 거주 경험 여부는 설문지를 통해 응답하게 하였으며, 그 비율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표 3> 설문조사 대상자 구성 및 특성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학년	중학교 1학년	57	31
	중학교 2학년	62	34
	중학교 3학년	64	35
성별	남자	97	53
	여자	86	47
해외 연수 및 해외 거주 경험 여부*	있음	16	9
	없음	167	91
합계		183	100

* 최소 한 달 이상의 학업을 위한 해외 연수나 여타의 목적을 위한 해외 거주에 한함.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대상자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재학 중으로 모두 2001년에서 2003년 출생으로 만 13세에서 만15세 사이에 있다. 앞서 살펴본 Piaget와 Erikson의 이론에 따르면 본 설문조사의 대상자들은 초기 청소년기에 속해 있고, 언어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해나가기 시작하는 나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성별은 남자 97명(53%), 여자 86명(47%)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이 비해 9명(6%) 많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본 연구에서 다르지 않기로 한다.

셋째, 대상자들에게 해외 연수 및 해외 거주 경험 여부가 '있음'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16명(9%), '없음'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167명(91%)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학업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한 달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해외 거주 경험은 대부분 방학 기간 동안 사설 기관을 중개하여 짧은 연수를 다녀온 경험에 해당했다. 그 장소는 필리핀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캐나다, 미국 등이 있었다. 해당 국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모르겠다,' 또는 '어머니가 선택하셔서'라고 답하였는데, 필리핀 등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아시아 국가가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 비해 연수비용이 적고 이동 거리 및 시간이 짧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2. 연구 기준 및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남 지역 한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와 유사한 정현정(2012), 이화정(2014), 전미경(2014)의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는데, 각 문항들은 응답자인 중학생의 인지 수준에 맞게 수정하였다. 또한, 경남의 지역 학생들의 영어 학습 환경의 지역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설문지의 문항은 모두 27개로, 각 문항들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설문지는 영어 교육 전공자들 및 현직 교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신뢰도를 높였다.

2.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앞서 언급한 연구 문제에 따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있으며 각 영역별로 문항 개수를 균형 있게 배분하였다. 설문지의 총 문항은 27개로, 문항 번호는 1번부터 25번까지이나 11번 문항에 11-1과 11-2가 딸림 문항으로 배치되어 있다. 설문지의 응답 형식은 대부분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그저 그렇다(3), 아니다(2), 매우 아니다(1) 중 선택하는 리커트 5점 척도(Likert Scales)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들이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한 가지만을 답하도록 제한하는 자기 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설문지의 문항 구성

연구 문제	질문 영역	주요 내용	문항 번호
현재 영어 사용 및 학습 환경	연구대상자의 영어 학습 상황	영어 학습 목적	1
		영어 학습 방법	2
		영어 사용 빈도	3
		해외 거주 경험 여부	4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학교 학습 상황	학교 내 접촉 외국인	5
		학습하는 영어의 종류	6, 7
	지역적 특성	세계 영어에의 노출	8
		지역 내 접촉 외국인	9, 10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원어민 및 비원어민 사용자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영어 교사 출신에 따른 선호도를 통해 보이는 영어 변이형 대한 언어태도	11, 11-1, 11-2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	국제사회 공용어	12
		국제사회 의사소통의 기능	13
		영어 사용의 확산	14
		영어 사용의 필요성 인식	15
영미권, 공용어권, 한국식 영어에 대한 선호도에 나타난 EIL 인식	영미권 영어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영미권 영어에 대한 인식	16, 17
		영미권 영어에 대한 선호도	18, 19
	공용어권 영어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공용어권 영어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20
		공용어권 지역의 연수 선호도	21
	한국식 영어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한국에서의 영어 학습 선호도	22
		한국식 영어에 대한 태도	23
EIL 소유권에 대한 인식	영어의 다양성에 대한 태도에 나타난 영어 소유권 인식	EIL의 소유권	24
		영어 화자의 개념의 확대	25

3. 연구 단계 및 자료 수집

설문 조사는 경남 지역 한국인 중학생 중 김해시의 A중학교에 재학 중인 임의의 18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A중학교에 찾아가 허락을 구하였으며, 수업 및 종례 시간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응답 시 유의점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4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83장의 응답 내용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응답자 187명 중 총 183명(98%)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가 수집 및 분석되었다.

4. 분석 방법 및 과정

본 설문 조사의 응답 내용은 IBM SPSS Statistics 18.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응답자들의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답자들의 의견과 특성을 알아보기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응답자들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알아보기로 자유로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빈칸을 마련하여 질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응답자의 영어 학습 및 사용 환경

본 문항 영역에서는 현재 한국 영어 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생 응답자들의 영어 학습 및 사용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응답자들의 영어 학습 및 사용 환경은 아래와 같다.

1.1. 영어 학습 상황

우선 설문 대상자들의 주요 영어 학습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질문한 문항은 다음의 네 문항이며 각 문항은 객관식으로 설정되었다.

1. 귀하의 영어 학습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현재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영어 학습 방법은 무엇입니까?
3. 귀하는 평소 얼마나 자주 영어를 의사소통에 사용합니까?
4. 해외 어학연수 및 유학 또는 거주 경험이 있습니까?
(학업이나 언어학습을 위한 유학 및 어학연수에 한함 / 최소 한 달 이상의 경우에 한함)

문항 1은 영어를 왜 학습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으로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그래프 1> 영어 학습 이유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영어를 학습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내었다. 선행 연구들에서 많은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라고 대답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 문제와 함께 장차 준비하게 될 수능 등 다양한 시험에 대한 부담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한다고 하는 학생은 비록 두 번째로 비율이 높기는 했으나 그 빈도가 60명에 가까우므로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영어가 재미있고 좋아서 학습을 한다는 답변의 빈도가 현저히 낮아 이는 우리 영어 교육의 개선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문항 2는 가장 시간과 노력 투자를 많이 하는 영어 학습 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영어를 학습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프 2>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영어 학습 방법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영어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는 문항2에 대해 매우 높은 비율로 ‘사설 영어 학원’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로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영어 공부 하는 것을 더 중시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앞선 문항에서 학교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한다고 답변한 것과는 반대로, 학교 시험 준비를 학원에서 한다는 답변을 하여 다시 한 번 공교육의 나아갈 점에 대해 고찰하게 만드는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문항 3은 평소 얼마나 영어를 사용하는지 그 빈도에 대한 질문으로 해당 문항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래프 3> 평소 영어 사용 빈도



영어를 얼마나 자주 의사소통에 사용하느냐라는 문항3에 대해서는 평소 의사소통에는 ‘거의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현재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사설 영어 학원을 다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사설 영어 학원에서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게 되나, 평소 학교나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읽기나 듣고 문제 풀기, 쓰기 등 실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보다, 책을 보고 하는 공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문항 4는 최소 한 달 이상, 학업이나 언어 학습을 위한 유학 및 어학연수를 하며 해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며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그래프 4> 어학연수 및 유학 여부



91.3%에 해당하는 거의 전부에 가까운 비율의 응답자들이 해외 거주 경험은 ‘없음’이라고 대답하였다. ‘있음’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8.7%로 다녀온 지역은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중 공용어권 국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였다. 거주한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내외였으며, 그 목적은 어학연수가 가장 많았다. 비교적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명으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4년간 거주하였다. 비록 거주 목적은 어학 학습이 아닌 부모님의 근무 지역 이동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각국의 다양한 영어를 접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해당 학생을 비롯하여 해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답변과 인식은 2.1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식 영어 외 다양한 화자들의 세계 영어를 접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낮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한국 내의 영어 교육을 통해 영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1.2.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학교 학습 상황

아래 답안은 학교에서의 영어 학습 상황, 즉, 공교육에서 어떻게 영어를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이 분야에서의 문항은 학교에서 학습하는 영어의 종류 및 학교에서 접하는 외국인의 출신지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학교에서 학습하고 접하는 영어 및 외국인이란 교사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해당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본 절에서 질문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5. 학교에서 접하는 외국인(교사, 친구 등)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6. 학교에서 학습하는 영어는 주로 어느 나라의 영어입니까?
7. 학교에서 영미권 이외의 다양한 세계 영어(예, 중국 영어, 인도 영어, 필리핀 영어 등)를 학습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5. 학교에서 접하는 외국인(교사, 친구 등)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그래프 5> 학교에서 접하는 외국인



학교에서 어떠한 영어를 학습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미국 및 캐나다 등 영어 모국어권, 즉, 영미권 영어를 학습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우리 교과서가 영미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김해시의 많은 학교에서 외국인 영어 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근래 몇 년 동안 외국인 교사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인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채희(2014)는 영어 교사가 세계 영어로의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다고 하며, 교사들이 교과서 외에도 흥미로운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영어 변이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항 6과 7에서는 학교 내 영어 교육, 즉 공교육에서 세계 영어를 학습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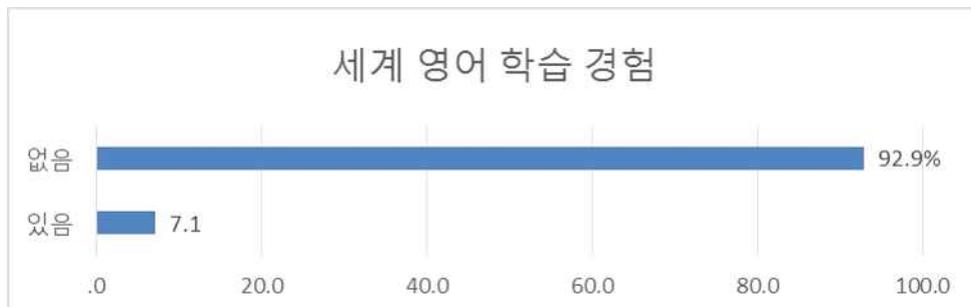
문항 6. 학교에서 학습하는 영어는 주로 어느 나라의 영어입니까?

<그래프 6> 학교에서 학습하는 영어의 종류



문항 7. 학교에서 영미권 이외의 다양한 세계 영어(예, 중국 영어, 인도 영어, 필리핀 영어 등)를 학습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프 7> 학교 내 세계 영어 학습 경험



학교에서 학습하는 영어가 어떤 영어냐는 질문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영어라고 답하였으며 그 외 영국 영어, 공용어권 국가의 영어, 또는 기타 국가의 영어를 학습한다고 답변한 학생도 있었다. 이러한 답변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문화 영역을 다루는 단원에서 학생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외 다른 국가 출신의 인물이 등장하였을 때 그 인물이 하는 영어를 해당 국가의 영어라고 여겼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발음이나 단어 및 문장 구조 등이 해당 권역의 영어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이 경험한 세계 영어가 실제로는 세계 영어가 아닐 수 있다.

위와 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로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친구 및 다른 교직원들 중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어를 접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어떠한 이유로 세계 영어를 경험하였든, 7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세계 영어를 학습하는 기회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교육 영어 교과 과정의 학습 목표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나 이를 위한 다양한 세계 영어 변이형에 대한 학습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의 발전에 비해 실질적 학습 내용에 대한 발전과 개정은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3. 지역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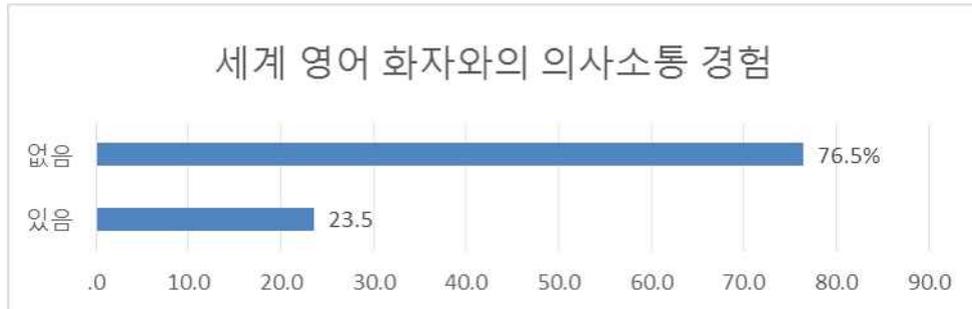
본 절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지역 사회에서 세계 영어와 접한 경험이 있는지, 또한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와 함께 그 때의 느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해당 문항은 아래와 같다.

8. 영미권 영어 이외의 다양한 세계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9.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마을, 학원, 식당 등) 주로 접하는 외국인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10.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마을, 학원, 식당 등) 얼마나 자주 외국인을 접합니까?

문항 8. 영미권 영어 이외의 다양한 세계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영미권 영어 이외의 다양한 세계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한 경험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해당 외국인의 출신 국가와 본인이 의사소통 시 느낀 점은 무엇이었냐는 문항 8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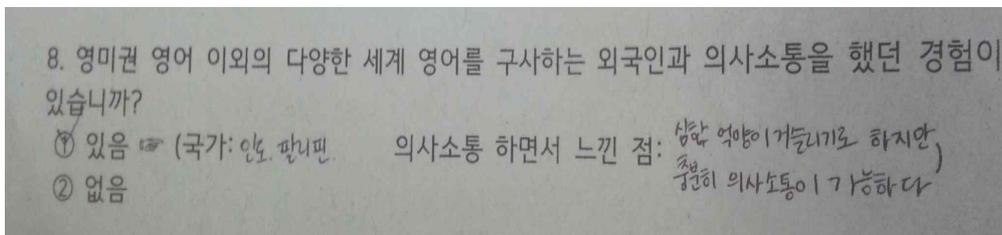
<그래프 8> 세계 영어 화자와의 소통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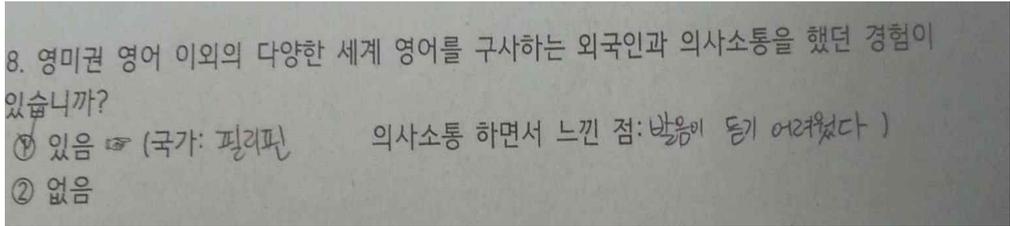
8번 문항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없음’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약 24%의 학생들이 ‘있음’이라고 대답하였다. ‘있음’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의 대답은 제각기 매우 다양하였는데, 아래 A, B, C 유형 정도로 나눌 수 있었다.

- A형. 억양의 차이가 있음을 알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음.
- B형. 억양의 차이가 있음을 알았고 영어를 더욱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함.
- C형. 억양과 발음의 차이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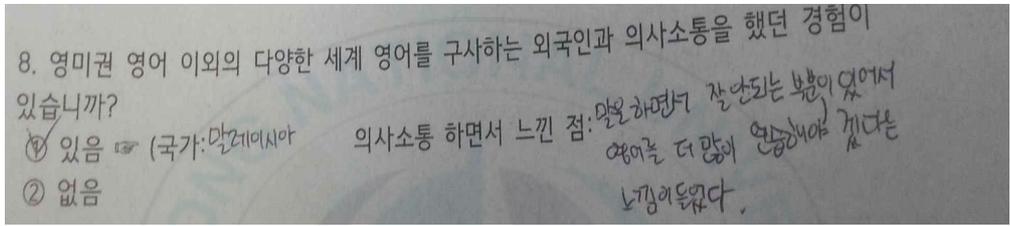
<그림 4> 문항 8에 대한 답변 A



<그림 5> 문항 8에 대한 답변 B



<그림 6> 문항 8에 대한 답변 C



유형 A, B의 속하는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 학생들에게 세계 언어에 대한 접촉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C를 통해서도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영어에 대한 흥미 저하나 열등감, 또는 변이형 영어는 ‘옳지 않다’는 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함을 알 수 있다.

문항 9과 10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세계 영어 화자인 외국인들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접촉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문항 9.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마을, 학원, 식당 등) 주로 접하는 외국인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그래프 9> 주로 접하는 외국인



문항 10.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마을, 학원, 식당 등) 얼마나 자주 외국인을 접합니까?

<그래프 10> 지역사회 내 외국인 접촉 빈도



설문지를 분석하기 전에는 문항 9와 10에 대해 김해시는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 평소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경로로 외국인을 많이 접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외국인을 평소 접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접한다 하더라도 사실 학원에서 고용하는 외국인 회화 선생님을 만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영미권 국가 출신 외국인을 많이 접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따라서 문항 9에서 ‘기타’라는 답변이 높게 나온 것은 학생들이 평소에 외국인을 만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영미권 출신 외국인을 만난다고 답변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설학원의 외국인 선생님을 의미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아시아권이라고 답한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때에도 직접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문항 10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이나 한 달에 몇 번 접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사실 학원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원어민 및 비원어민 사용자에게 대한 인식과 선호도에 대해 11번 문항으로 알아보고, 다음으로 국제공용어로서 사용되는 영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2.1. 원어민 및 비원어민 사용자에게 대한 인식과 선호도

영어교사의 출신에 따라 학생들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학생들에게 미국, 영국, 인도, 필리핀, 한국 출신의 영어 선생님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본인이 선호하는 출신 국가대로 순서를 매기도록 하였다.

11. 아래 5개 국가 출신의 영어 교사들이 5명 있다고 가정할 때, 선호하는 출신 국가 순으로 1, 2, 3, 4, 5 번호를 매겨주십시오. (보기: 미국, 영국, 인도, 필리핀, 한국)

11-1. 1순위 국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2. 5순위 국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11번 문항에서는 보기를 영미권 국가의 종류를 미국과 영국으로만 설정하였다. 이전 문항들의 보기와 달리 호주나 뉴질랜드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는 중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연구 결과 분석의 용이성을 위함으로 보기의 폭을 좁히기 위함이었다. 둘째로는 학생들에게 설문지 배포 전 사전에 영미권 영어의 종류와 그 차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냐고 질문하였을 때 미국과 영국 외의 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대해서는 그 차이점을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영미권 국가 내 영어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다가 자칫 문항의 질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였다.

<표 5> 문항 11 설문 결과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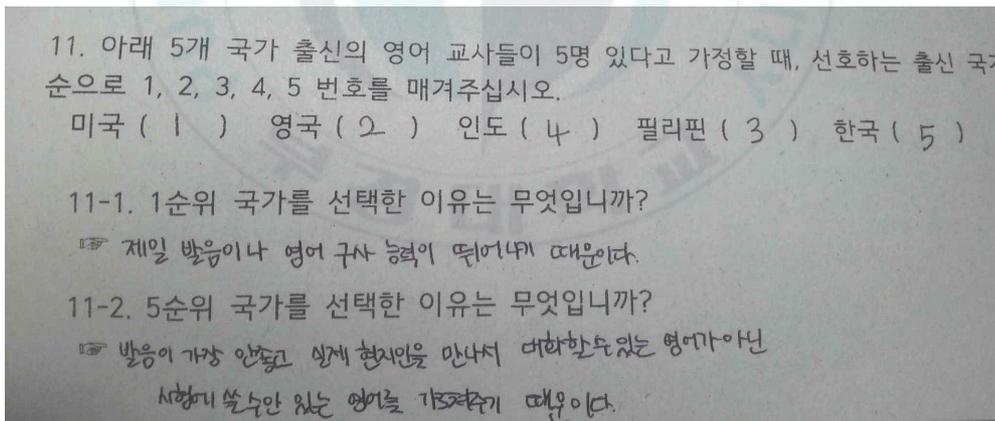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미국	1.57	.74
영국	2.53	.81
인도	4.44	.81
필리핀	4.01	.73
한국	2.46	1.39

11번 문항의 답변 결과, 가장 선호되는 국가로는 미국(기술통계 평균 1.57)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한국(2.46), 세 번째로는 영국(2.53)이었으며 하위권으로는 필리핀(4.01)이 뒤를 이었으며 가장 선호하지 않는 국가는 인도(4.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결과를 보았을 때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미국이 압도적이었으며 한국이 두 번째를 차지하였으며 인도와 필리핀은 다른 세 국가와는 많은 격차로 하위권으로 선택되었다.

학생들이 미국인 교사를 첫 번째로 꼽은 이유로 가장 많이 든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가 미국 영어이기 때문에’였다. 즉, 공교육 현장에서 배우는 미국 영어를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 또한 미국 출신이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최진숙(2002)과 이화정(2014)은 영

어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비례하여 상승한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학교 영어 교육에서 미국식 영어에 대해 높은 편중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국 출신 영어 교사를 선호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린 학생들의 언어태도 형성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옳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미국 영어가 ‘옳은 것’이며, 다른 세계 영어는 ‘옳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는 왜곡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태도는 나아가 미국 외 다른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접하였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거나 경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조속히 공교육 영어에서 다양한 세계 영어를 다루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래는 미국 출신 영어 교사를 선호한다고 답변한 학생의 응답이다.

<그림 7> 문항 11에 대한 답변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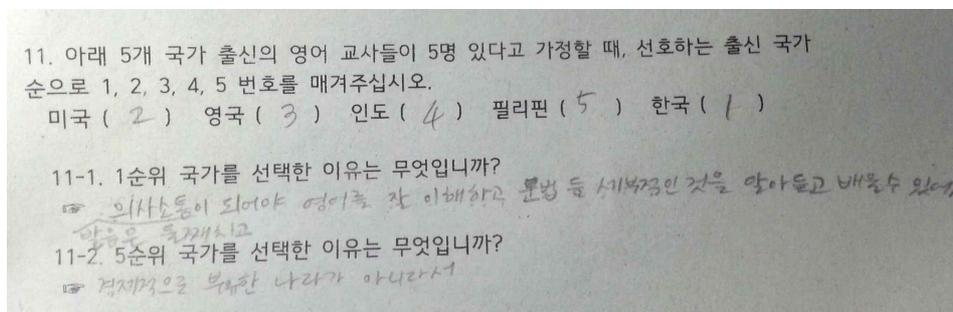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 출신 영어 교사를 선호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고, 모르는 것을 한국어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든 까닭으로는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감

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로 발화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답변 경향은 이화정(2014)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학생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이유로 인해 한국인 교사를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화정(2014)의 연구에서와 달리 본 연구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인 영어 교사를 낮은 순위로 꼽은 학생이 꽤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생들이 한국인 교사를 낮은 순위로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한국인은 발음이 안 좋아서, 한국식 발음이 싫어서’와 ‘한국식 영어 외의 새로운 다른 영어를 접해보고 싶어서’로 볼 수 있었다. 전자의 답변이 나온 배경으로는 여전히 영미권 영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식 영어 발음에 대해 학생들이 위축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교사의 한국식 영어 발음에 대한 비선호도는 나아가 자신의 한국식 영어 발음에 대한 열등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세계 영어에 대한 인식 개선의 방향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함을 생각하게 한다. 아래는 한국인 영어 교사를 1순위로 꼽은 학생의 응답지와 이와 반대로 한국인 출신 교사를 낮게 선호하는 학생의 답안이다.

<그림 8> 문항 11에 대한 답변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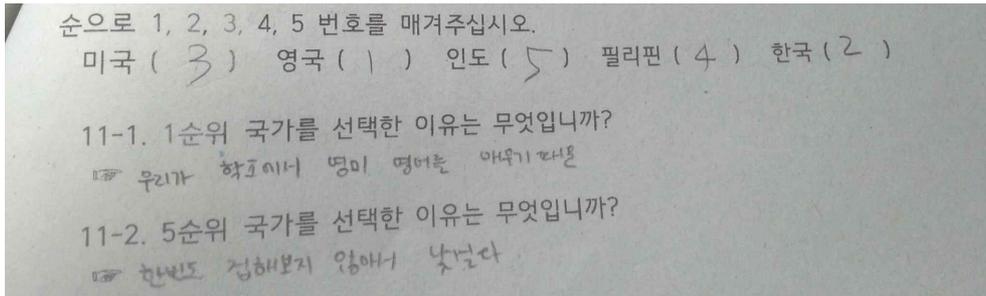
학생들이 영국 영어나 영국 자체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미디어 매체의 영향으로 인한 이미지 형성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동영상 웹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의 채널 ‘영국남자’, 영화 ‘King’s Man’, TV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등 다양한 매체에서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보여주고 있다. 영국에 대한 이와 같은 이미지가 감수성이 풍부한 중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에 영향을 미쳐 영국식 영어에 대한 선호도를 높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양한 영어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한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필리핀이나 인도보다는 영국 출신 교사를 높은 순위로 측정한 것에서 여전히 영미권 영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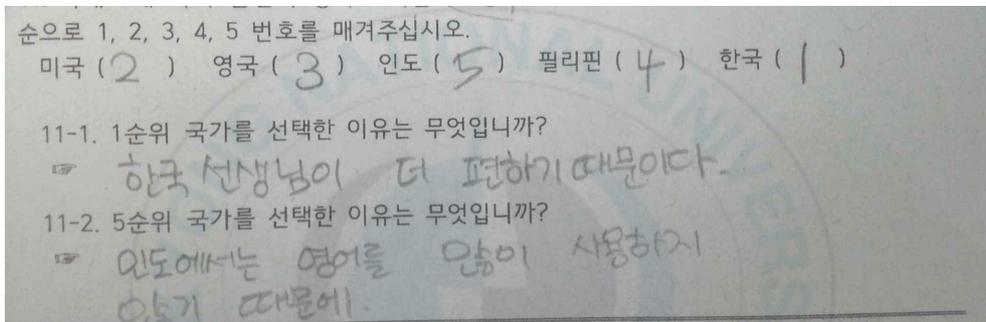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필리핀 출신 교사와 인도 출신 교사를 각각 4위와 5위로 측정하였으며, 해당 국가 출신 교사를 선호하는 비율은 극소수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화정(2014)의 연구에서 도출된 설문조사의 결과와 동일한데, 이화정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한국 학생들에게 세계 영어에 대해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학생들은 인도 출신 교사에 대해 ‘영어를 못할 것 같다,’ ‘발음이 나쁘다,’ ‘낮설다’ 등의 의견을 내어 놓았다. 놀라운 사실은 인도가 영어권인지 몰랐던 학생들도 다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의 기초 상식이나 인지 능력을 탓하기보다는 영어 교육 현실에서 그만큼 세계 영어를 다루는 비율이 낮음을 제고해 보아야 한다. 학생들 중에서는 ‘인도식 영어 발음은 나쁘다’라고 하거나 ‘발음이 이상하다’라고 대답한 경우도 있어 언어 태도 및 세계 영어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래는 필리핀과 인도 출신 교사를 비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응답지이다.

<그림 12> 문항 11에 대한 답변 F



<그림 13> 문항 11에 대한 답변 G



설문조사 대상자들 중 앞선 4번 문항에서 부모님의 근무 지역 이동으로 인하여 4년 동안 다양한 국가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1명 있었다. 해당 학생은 세계 영어에 대한 경험이 많을 것이므로 다양한 변이형 영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응답지를 살펴본 결과, 세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 경험이 많으며 이것이 흥미롭다고 느껴 세계 영어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원어민 및 비원어민 화자에 대한 선호도에서 ‘한국 화자는 영어를 못한다’고 대답하여 한국식 영어에 대해서는 왜곡된 언어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에 큰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나 이를 교사가 옆에서 조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용어와 같이 사용되는 영어의 현황과 그 기능, 학습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당 문항과 그에 따른 결과들은 아래와 같다.

- 12. 오늘날 영어는 국제사회에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13. 영어가 널리 퍼진 것은 세계화 시대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 14. 영어는 특정 계층이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언어이다.
- 15. 나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문항 12. 오늘날 영어는 국제사회에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표 6> 문항 12 설문 결과

문항 12	내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아니다	3	1.6
②	아니다	1	0.5
③	보통이다	23	12.6
④	그렇다	57	31.1
⑤	매우 그렇다	99	54.1
합계		183	100

문항 12에 대해 과반수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여 국제 사회에서 영어가 공용어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문항 13. 영어가 널리 퍼진 것은 세계화 시대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7> 문항 13 설문 결과

문항 13	내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아니다	4	2.2
②	아니다	2	1.1
③	보통이다	32	17.5
④	그렇다	60	32.8
⑤	매우 그렇다	85	48.4
합계		183	100

13번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은 거의 50%에 가까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라고 답변한 학생도 30%가 넘었다. 즉, 70%가 넘는 학생들이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위해 영어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항 14. 영어는 특정 계층이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언어이다.

<표 8> 문항 14 설문 결과

문항 14	내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아니다	5	2.7
②	아니다	7	3.8
③	보통이다	37	20.2
④	그렇다	60	32.8
⑤	매우 그렇다	74	40.4
합계		183	100

14번 문항에서 영어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제약 없이 널리 쓰

이는 언어임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서 70%가 넘는 많은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학생들은 영어가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사용되거나 특정 계층과 지역의 사람들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개방적인 EIL 소유권 인식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장차 세계의 다양한 장소에서 세계인들을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영어를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항 15. 나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표 9> 문항 15 설문 결과

문항 15	내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아니다	5	2.7
②	아니다	5	2.7
③	보통이다	45	24.6
④	그렇다	61	33.3
⑤	매우 그렇다	67	36.6
합계		183	100

15번 문항에서는 학생들이 국제적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에 대해 약 70%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세계화 시대에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도 영어를 배워 그 변화에 발맞추어야 함을 정확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학생들이 영어의 수단과 목적으로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영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3. 영미권, 공용어권, 한국식 영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본 절에서는 영미권 영어, 공용어권 영어, 한국식 영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학생들이 영미권 영어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공용어권 영어에 대해 어색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국식 영어에 대해서는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절에 해당되는 문항은 아래와 같다.

3.1. 영미권 영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본 절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이 영국 및 미국 등 영미권 영어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해당 문항과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6. 영어 학습 시 영미권의 영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17. 영어 회화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18. 미국이나 영국, 또는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예: 베트남, 중국, 필리핀 사람)이 쓰는 다양한 영어가 낯설거나 듣기 불편하다.
19.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원어민 같은 유창한 발음을 갖추어야 한다.

문항 16. 영어 학습 시 영미권의 영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표 10> 문항 16 설문 결과

문항 16	내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아니다	4	2.2
②	아니다	15	8.2
③	보통이다	67	36.6
④	그렇다	58	31.7
⑤	매우 그렇다	39	21.3
합계		183	100

16번 문항에 대해 가장 많은 학생들이 대답한 항목은 ‘보통이다’로 이는 전체 응답자의 약 36%를 차지하였다. ‘그렇다’라는 대답은 약 31%였다. 이에 반해 ‘아니다’라고 답변한 학생은 약 8%, ‘매우 아니다’라는 항목을 선택한 학생은 2%에 불과하였다. 이는 위의 11번 문항에서 영미권 출신 영어 교사를 선호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로, 학생들이 영미권 영어를 자주 접해왔기 때문에 이를 가장 배워야 할 영어로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화정(2014)은 빈번한 영미권 영어에 대한 노출이 학생들에게 영어는 곧 미국이라는 등식이 심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표면적으로는 ‘영어는 국제어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영미권 영어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순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본다.

문항 17. 영어 회화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표 11> 문항 17 설문 결과

문항 17	내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아니다	9	4.9
②	아니다	21	11.5
③	보통이다	68	37.2
④	그렇다	53	29.0
⑤	매우 그렇다	32	17.5
합계		183	100

17번 문항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영미권 출신 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 중간 수치의 항목인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그렇다’로 29%, 다음으로는 ‘매우 그렇다’가 17.5%로 그 뒤를 따랐다. 이는 앞선 문항 11번에서 영미권 출신 영어 교사와 그 영어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가진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답이라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여전히 ‘영미권 출신 원어민’에게서 영어를 배워야만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화정, 2014). ‘매우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고 대답한 학생들도 있어 학생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문항 18. 미국이나 영국, 또는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쓰는 다양한 영어가 낯설거나 듣기 불편하다.

<표 12> 문항 18 설문 결과

문항 18	내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아니다	18	9.8
②	아니다	32	17.5
③	보통이다	83	45.4
④	그렇다	34	18.6
⑤	매우 그렇다	16	8.7
합계		183	100

18번 문항은 ESL 또는 EFL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화자들이 하는 영어를 접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취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과반수에 가까운 45%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여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모국어권이 아닌 권역의 영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이러한 대답을 한 학생들의 비율은 약 27%로 그 비율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세계 영어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문항 19.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원어민 같은 유창한 발음을 갖추어야 한다.

<표 13> 문항 19 설문 결과

문항 19	내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아니다	16	8.7
②	아니다	38	20.8
③	보통이다	54	29.5
④	그렇다	47	25.7
⑤	매우 그렇다	28	15.3
합계		183	100

19번 문항은 학생들이 원어민과 같이 유창한 영어 발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답변이 비교적 1번 보기부터 5번 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문항들의 답변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때, 학생들은 영미권 영어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영미권 영어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유창한 발음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비슷한 수준으로 있어, 학생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2. 공용어권 영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본 절에서는 응답자들이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공용어권 국가의 영어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20. 영미권 영어가 아니더라도 (예: 필리핀 영어, 인도 영어) 국제사회에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
21. 영어 학습을 위해 해외 연수를 간다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예: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등)도 생각할 수 있다.

문항 20. 영미권 영어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

<표 14> 문항 20 설문 결과

문항 20	내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아니다	9	4.9
②	아니다	10	5.5
③	보통이다	70	38.3
④	그렇다	64	35.0
⑤	매우 그렇다	30	16.4
합계		183	100

20번 문항에서는 학생들이 공용어권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가에 대해 묻는 의견으로 학생들의 답변은 위와 같았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대답은 ‘보통이다’라는 항목이 가장 높은 비율인 38%로 나타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국제사회에서 영미권 영어를 사용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아니다’라는 학생과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약 20명으로 그 비율이 10%가 조금 넘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이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영어 사용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문항 21. 영어 학습을 위해 해외 연수를 간다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도 생각할 수 있다.

<표 15> 문항 21 설문 결과

문항 21	내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아니다	5	2.7
②	아니다	10	5.5
③	보통이다	60	32.8
④	그렇다	67	36.6
⑤	매우 그렇다	41	22.4
합계		183	100

21번 문항은 학생들이 영어 학습을 위해 해외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익숙하게 접해왔던 영미권 국가 외의 국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과반수의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대답을 하여 공용어권 국가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여전히 상당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여 영미권 영어 국가에 대해 지역적 선호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그래도 영미권 국가가 학습하기에 나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3. 한국식 영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본 절에서는 응답자들이 현재 자신이 사용하는 한국식 영어 및 자신이 영어를 학습하고 있는 공간인 한국에서 사용되는 영어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22. 한국에서도 영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다.
 23. 한국식 영어(Konglish)도 세계 영어 중 하나로 인정받아야 한다.

문항 22. 한국에서도 영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다.

<표 16> 문항 22 설문 결과

문항 22	내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아니다	4	2.2
②	아니다	2	1.1
③	보통이다	41	22.4
④	그렇다	61	33.3
⑤	매우 그렇다	75	41.0
합계		183	100

22번 문항에서는 영어 학습을 한국에서만 할 경우에도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다. 학생들은 70%가 넘는 높은 비율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답하여 한국에서의 영어 학습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굳이 해외에서 연

수를 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를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나 공용어로 배우는 국가에서 학습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식 영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 23. 한국식 영어(Konglish)도 세계 영어 중 하나로 인정받아야 한다.

<표 17> 문항 23 설문 결과

문항 23	내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아니다	10	5.5
②	아니다	11	6.0
③	보통이다	75	41.0
④	그렇다	53	29.0
⑤	매우 그렇다	34	18.6
합계		183	100

23번 문항에서는 한국식 영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한국식 영어가 세계 영어 중 하나로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는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여 아직까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무적인 것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점이다.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라고 대답하여 한국식 영어를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한국식 영어를 선호하고 이에 대해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높다는 점은 우리 학생들의 인식이 발전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4. EIL 소유권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학생들이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소유권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그 결과를 알아보았다. 본 절에 해당하는 설문지의 문항은 아래와 같다.

- | |
|---|
| <p>24. 영어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언어이므로 미국 또는 영국과 같은 특정 국가만의 언어가 아니다.</p> <p>25.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라면 한국인도 영어화자(English Speaker)라고 말할 수 있다.</p> |
|---|

4.1. 영어의 다양성에 대한 태도에 나타난 영어 소유권 인식

연구 대상자들이 EIL 소유권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음 24번, 25번 문항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문항 24. 영어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언어이므로 미국 또는 영국과 같은 특정 국가만의 언어가 아니다.

<표 18> 문항 24 설문 결과

문항 24	내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아니다	3	1.6
②	아니다	5	2.7
③	보통이다	57	31.1
④	그렇다	63	34.4
⑤	매우 그렇다	55	30.1
합계		183	100

24번 문항에서는 학생들에게 영어가 영미권 국가의 소유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60%가 넘는 비율의 학생들이 대답하여, 학생들의 세계 영어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가 영국과 미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영어가 영국이나 미국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는 앞선 문항들에서 많은 학생들이 영미권 영어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영미권 영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지, 영어가 영미권의 소유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어, 잘못된 언어태도의 형성으로 인한 ‘언어 사대주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5.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라면 한국인도 영어화자 (English Speaker)라고 말할 수 있다.

<표 19> 문항 25 설문 결과

문항 25	내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아니다	3	1.6
②	아니다	1	0.5
③	보통이다	52	28.4
④	그렇다	74	40.4
⑤	매우 그렇다	53	29.0
합계		183	100

25번 문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동일한 25번 문항을 사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던 전미경(2014)의 결과에서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과반수가 나온 것에 비해 학생들의 인식이 발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미경(2014)의 연구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화자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다소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여 ‘세계화 시대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면 영어 화자가 맞다’는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영어가 국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임을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알아간다는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경상남도 김해 지역 중학생들이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연구하여 우리 영어 공교육 과정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어디 위하여 중학생 183명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받았으며, 응답자들은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이었다. 설문지 문항의 영역은 현재 영어 사용 및 학습 환경,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영미권, 공용어권, 한국식 영어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그리고 EIL 소유권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져 실시되었다.

위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와 그에 대한 연구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어 학습을 학교 및 학원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하고 있었다. 또한 영어가 국제 공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 실제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 영어 교육 자체가 미국 영어 중심이기 때문에 영미권 영어 외의 다양한 세계 영어를 접할 기회는 더욱 적었다. 또한 영어를 학습할 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 중 읽기와 문법 위주의 입시 중심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학교 시험

및 미래 대학 입시를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 학원에서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교 공부는 다소 등한시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철저히 미국 영어 중심, 입시 영어 중심의 우리 영어 학습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생들은 세계 영어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교육 현실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영미권, 공용어권, 한국식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세계 영어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영미권 영어에 대한 선호도를 인도 및 필리핀 등 공용어권 영어에 대해 현저히 높게 가지고 있었다. 특히, 영미권 영어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익숙해서가 아니라 ‘영미권 영어 방식이 맞는 것이라서,’ ‘어쩐지 멋져서’ 등 막연히 선호하거나 영미권 영어가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공용어권 영어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발음이 좋지 않아서,’ ‘어색해서,’ 등 공용어권 영어에 대해 접촉이 부족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어를 안 쓰는 국가라서’라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공용어권 영어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었다. 한국식 영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호는 하고 있었으나 이는 한국식 영어가 친숙하고, 필요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용이함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몇몇 학생들은 ‘한국식 영어는 발음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이 아직 한국식 영어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고,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영미권 영어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장차 영어 학습을 위하여 영미권이 아닌 공용어권 국가로의 해외 연수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현재는 세계 영어에 대한 노출 기회의 부족 및 제대로 된 학습 기회의 부재, 영미권 영어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입시 위주 학습 분위기에서 영미권 영어를 늘 정답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때문에 아직 영미권 영어에서 생각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의 세계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장차 학생들의 공용어권 영어 및 한국식 영어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생길 것이라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EIL 소유권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았을 때, 학생들은 영어가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권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국제 사회의 모든 화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식 영어도 세계 영어의 한 종류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우리 학습자들의 언어태도가 변화 가능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세계 영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만한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결과들을 통합하여 볼 때, 우리 학생들은 세계 영어에 대해 어느 정도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생각을 세계 영어에 대한 편견 없는 모습으로 다듬어준다면 충분히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2. 제언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남 김해 지역의 한국 중학생 학습자들이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한국 교육에서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외국어 습득을 통해 모국어와 외국어에 대한 언어태도를 형성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기청소년기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접촉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이형 영어에 대해 학생들을 노출시키고 이러한 노출이 지속되어야 세계 영어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식 영어에 대해서도 비원어민으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들이 세계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서의 영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영어의 이해도(intelligibility)보다는 문법 규칙이나 원어민과 비슷한 억양과 발음을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영어 학습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나 학생들은 이를 표면적인 목표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도구적 영어 사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수정이 필요하며, 실제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 학습을 이끌어주는 교사들이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한국 공교육이 이제까지 기준으로 삼아왔던 미국식 영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 및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날 영어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국제 공용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행 연구 및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나 현행 교육과정은 영미권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학습자들의 인식과 교육과정 간의 괴리가 있다. 따라서 세계화의 흐름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정과 평가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3. 본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경남 지역 중학생들의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 응답한 중학생들은 경남 지역 중 임의의 학교에서 편의로 모집된 응답자들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경남 지역 중학생들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렵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학생으로, 성인에 비해 설문지 이해 및 언어 표현 능력이 미숙하다. 또한, 중학생들의 발달 특성상 본인의 진솔한 생각이라기보다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초기 청소년기에 속한 중학생이라는 같은 그룹으로 여기고 그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학년별 영어 실력 차이나 어학 연수로 인한 실력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점을 비교연구하지 않아 세계 영어에 대해 더욱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 대한 언급은 결과의 응답 연구에서만 간략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에 대해 추후 학생들의 실력 차이에 따른 비교 연구 및 국외의 학생들과 국내 학생들과의 비교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받는 등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눈송이 (2012).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명숙 (2005). 세계영어 분류를 위한 새로운 모델 - 영어 피라미드. 「영어학 연구」, 22, 24-25.
- 김소연 (2008). 「한국 고등학생들의 세계 영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수련 (2010). 「세계영어(World Englishes)에 대한 한국 성인 영어 학습자들의 태도와 이해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종원 (2004). 학생들은 언제 말문을 여는가?: 원어민 교사 수업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16(2), 209-245.
- 백수은 (2011). 「거주지역별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와 문화간 감수성」.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윤희 (2015).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 문화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경숙 (2011). 국제사회 영어에 대한 대학생들의 언어 태도. 「한국영어학회」, 11(3), 497-519.
- 송서은 (2008). 「성인 학습자의 국제어로서의 영어(EIL)에 대한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흥동 (2011). 「세계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영어 다양성에 대한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채희 (2014). 「EIL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화정 (2014). 「중학교 영어 학습자의 EIL에 대한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미경 (2014). 「한국 중학생들의 세계 영어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지희 (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다문화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현정 (2012). 「세계 영어 (World Englishes) 에 대한 한국 고등학생의 태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행정자치부 (2015).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사회통합지원과 정책자료 통계.
- 허승희, 이영만, 김정섭 (2015).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 황혜원 (2015).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한국인 영어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들의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3rd ed.). New York: Pearson.
- Brown, K. (1995). World English: To Teach or not to Teach?, *World Englishes*, 14(2), 233-45.
- Crystal, D. (1997).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rtis, A. (2006). *Color, Race,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Shades*

- of Meaning*. London: Routledge.
- Eggen, P. & Kauchak, D. (2010) *교육심리학: 교육실제를 보는 창*. [Educational Psychology: Windows on classrooms]. (신중호, 김동민, 김정섭, 김종백, 도승이, 김지현, 서영석 (역). (2011). 서울: 학지사.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Graddol, D. (1997). *The Future of English*. London: The British Council.
- Graddol, D. (2006). *English Next: Why Global English May Mean the End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London: The British Council.
- Kachru, B. (1985). *Standards, Codification and Sociolinguistic Realism: The English Language in the Outer Circle*. In Quirk. R. & Widdowson H. G. (eds.), *English in the World: Teaching and Learning the Language and the Literature*, 11-3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chru, B. B. (1992). World Englishes: Approaches, Issues, and Resources. *Language Teaching*, 25, 1-14.
- Kachru, B. B. (1992). *Teaching World Englishes*. In B. B. Kachru (eds.), *The Other Tongue: English Across Cultures*. 355-366.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cKay, S. (2002). *Teach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Rethinking Goals and Approach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Namara. (1997). What Do We Mean by Social Identity? Competing

Frameworks, Competing Discourses. *TESOL Quarterly*, 31(3): 561-57.

Modiano, M. (1999). Standard Englishes and Educational Practices for the World's Lingua Franca. *English Today*, 15(4), 3-13.

Pennycook, A. (2001). *Critical Applied Linguistics: a Critical Introduction*.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Smith, L. (1976). English as an 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 *RELC Journal*, 7(2), 38-43.

UNESCO. (2003).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Paris: UNESCO Publications.

